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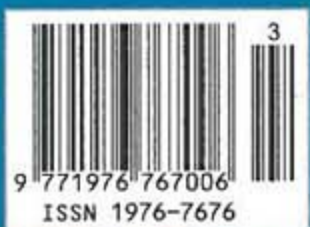
# Magazine ART

세상이 아름다운 Magazine 月刊 매거진아트

Cover Story

한라에서 설악까지

김선진



vol.107

March. 2014

3

Kim Seon-jin



▲ Wang Peng \_ Beyond \_ 2014

## 하늘땅바다(LANDSEASKY)-1

2014 2. 22(토) - 3. 23(일) (아트선재센터 T. 02-733-8945)

아트선재센터 2층 외 5개 갤러리(갤러리 스케이프, 옴시스아트,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갤러리HN)

호주예술 부문에서 아시아 분야 최고의 시각 예술 상을 수상한 MAAP이 새로이 기획한 호주 아시아 순회 전시회가 2014년 2월 21일 서울에서 열렸다.

아트선재센터는 북촌 일대 5개 갤러리(갤러리 스케이프, 옴시스아트,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갤러리HN)와 함께 《하늘땅바다》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 중국, 호주 3개국을 순회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예술가 20여 명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상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의 제목인 '하늘땅바다(LANDSEASKY)'는 '수평선(horizon)'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수평선은 가장 단순하게는 평면이나 지면을 가로지르는 한 줄의 선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하늘땅바다》전에서는 지평선을 통해 예술과 삶에 있어서 인간의 지각을 근본적이고 복합적으로 탐구한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얀 디베츠(Jan Dibbets)와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Joao Vasco Paiva), 그리고 김수자의 작업을 전시한다. 네덜란드의 개념미술가 얀 디베츠는 초창기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중 하나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수평선(Horizon) II〉(1971)와 〈수평선(Horizon) III〉(1971)는 평평하고 추상적인 스크린 공간에 작가가 카메라 프레임을 조작하며 촬영한 여러 각도의 수평선을 보여줌으로써 수평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는 바다 위 부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강요된 공감(Forced Empathy)〉(2011)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화면을 보정하여 독특한 공간감각을 자아낸다. 한편, 김수자는 〈보따

리 - 알파 비치 나이지리아(Bottari - Alfa Beach Nigeria)〉(2001)에서 수평선을 180도 전환해서 보여준다. 식민지로 향하는 노예선의 출발지였던 알파 비치의 뒤집어진 수평선은 역사와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보다 공포와 비극을 투사하는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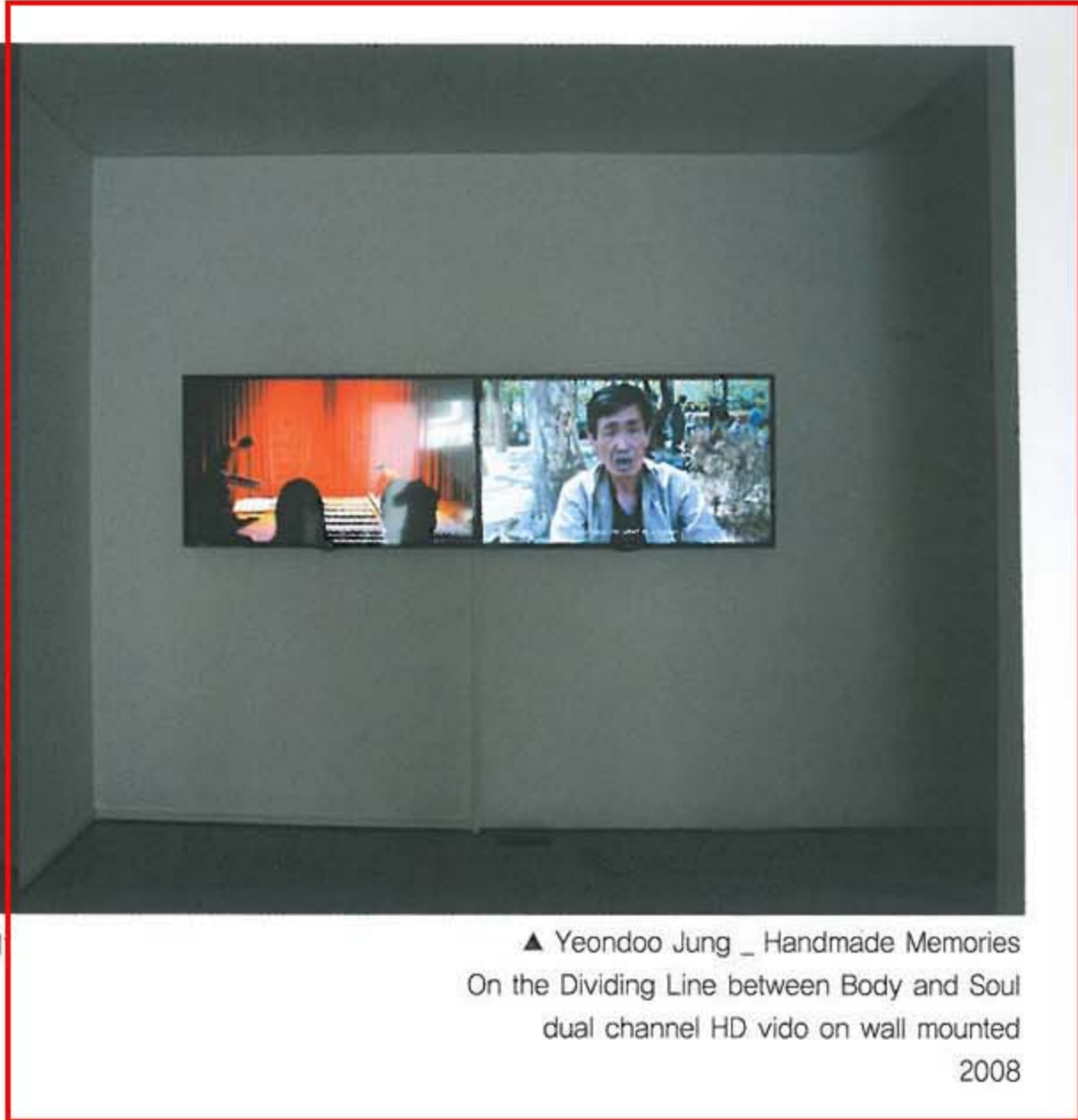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하늘땅바다》전은 아트선재센터뿐만 아니라 5개 갤러리들을 포함하여 북촌 일대 6개 전시장이 연계되어 선보인다. 관람객은 여섯 곳의 전시장을 옮겨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각각의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적 '사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MAAP(Media Art Asia Pacific)은 호주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시대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기관이다. MAAP SPACE 갤러리, MAAP Media Bank 등을 운영한다. 설립 16년 차인 MAAP는 《Light from Light》전으로 2013년 호주 문화부 장관이 선정하는 '아시아의 호주예술상'을 수상했다. MAAP는 문화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늘땅바다》전을 통해 다문화 교류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전시는 중국 상해(2014. 4. 20 - 7. 20, OCT -OCAT Contemporary Art Terminal, Shanghai)와 호주 브리즈번(2014. 9 - 11, MAAP SPACE, Griffith University Art Museum)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_ 취재부



▲ Lauren Brincat \_ This Time Tomorrow \_ Tempelhof \_ 201



▲ Yeondoo Jung \_ Handmade Memories  
On the Dividing Line between Body and Soul  
dual channel HD vido on wall mounted  
2008



▲ Derek Kreckler \_ Littoral \_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_ 2014



▲ Giovanni Ozolla \_ Garage-sometimes you  
can see much more \_ 2009-2011

참여작가 : 안디베츠, 호아오 바스코 파이바, 김수자 외 12명

폴 바이(Paul Bai, 호주), 로라 브린캣(Laura Brincat, 호주), 바바라 캠프벨(Barbara Campbell, 호주), 얀 디베츠(Jan Dibbets, 독일), 왕 공신(Wang Gongxin, 중국), 실파 굽타(Shilpa Gupta, 인도), 정연두(한국), 김수자(한국), 데릭 크랙클러(Derek Kreckler, 호주), 지오바니 오졸라(Giovanni Ozzola, 이탈리아), 왕 평(Wang Peng, 중국), 크레이그 월시(Craig Walsh, 호주), 심철웅(한국), 하이모 초베르니히(Heimo Zobernig, 오스트리아)